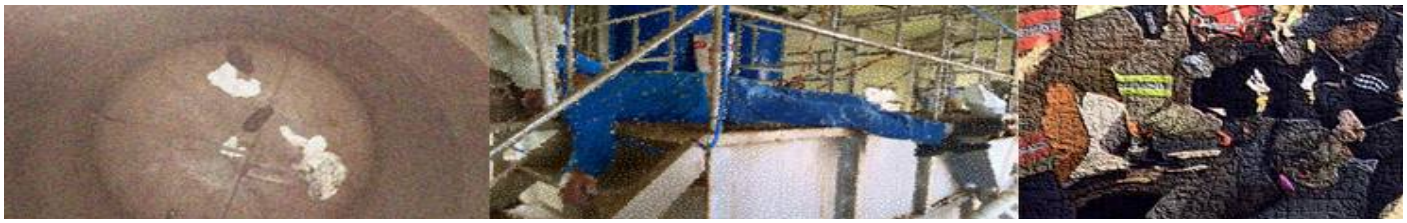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KOSHA Breaking News
2019. 1

사고발생속보
2019.1.16.



갈탄 대용으로 사용되는 신종 고체연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속보

‘19.1.16(수) 06:00경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질식사망

사고원인

▌갈탄, 코크스탄, 숯불 등 고체연료 사용시 발생된 일산화탄소 중독

갈탄의 대체연료로 판매되고 있는 코크스탄, 숯불난로 등은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

특히, **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작업** 시 천막, 비닐 등으로 보양작업 후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작업장소내 **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.**

▌적절한 보호구 미착용

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**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**에는 **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**를 작업자에게 지급하여 **반드시 착용하고 작업**해야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질식위험공간 안전작업 절차

▌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!

1	위험성 인지	‘질식 위험장소는 사망할 수 있다’는 사항에 대해 인지 및 출입금지 조치 (사전조치 없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함)
2	환기	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짐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켜야 함
3	보호구 착용	환기팬 가동이 불가능하면 소방관처럼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

▌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갈탄, 코크스탄, 숯불난로 등 고체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.

- **일산화탄소**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갈탄 등의 고체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킵니다.
- 특히, 1,2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쓰러져 사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※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은 1,200ppm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질식사고는 나쁜사고*입니다.

*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

| **배포처**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| **주소** 경기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| **전화** 031-785-3327 | **홈페이지** www.kosha.or.kr |